## <2014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 'A형' 정답 및 해설>

- 박문각 남부고시 학원 **전선혜 교수**

### <총평>

올해 서울시 9급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문학 독해 문제가 많지 않고, 수능형 문학 문제가 거의 없었다는 점 역시 올해 서울시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출제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가직이나 통합 지방직 시험의 유형으로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2문항이 출제된 문학사나 역시 2문항이 출제된 한자 표기 문제에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은 어떤 직렬이든, 어떤 기관에서 출제를 하든 늘 나오는 유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공부해 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을 통해 항상 듣고, 문제도 많이 풀어 본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체감 난도는 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상반기 시험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하반기에 또 다른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쯤에서 호흡 한 번 크게 하고 다시 뛸 준비를 합시다.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氣 를 전합니다.

1. ②번

70세를 가리키는 한자어는 종심(從心), 고희(古稀) 등이 있다. '종심'은 공자가 '칠십이종심소욕불유구(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나이 칠십이 되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몸이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① 이순(耳順): 60세, 공자가 예순 살부터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③ 지천명(知天命): 50세, 공자가 쉰 살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④ 불혹(不惑): 40세, 공자가 마흔 살부터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았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⑤ 이립(而立): 30세, 공자가 서른 살에 자립했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2. ③번

'모름지기'는 '~해야 한다' 형태의 서술어와 호응한다.

3. ④번

'어여쁘다'는 '가엾다(가엽다)'의 의미에서 '예쁘다'의 의미로 바뀌었다.

4. ⑤번

'아름답게'는 형용사 '아름답다'의 활용형이다.

① 두루: 부사. '빠짐없이 골고루'의 의미
② 가장: 부사. '여럿 가운데 어느 것보다 정도가 높거나 세게'의 의미
③ 풍성히: 부사. '넉넉하고 많이'의 의미
④ 아낌없이: 부사, '주거나 쓰는 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이'의 의미

5. ③번

'~니까 ~했다'의 구조는 종속절과 주절이 인과 관계오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① '예쁜'이 관계 관형절이다.
② '비가 오기'가 명사절이다.
④ '지금이 중요한 때임'이 명사절이다.
⑤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가 인용절이다.

6. ①번
'콩트, 더블, 게임, 피에로'는 모두 우리가 흔히 된소리(꽁트×, 떠블×, 께임×, 삐에로×)로 많이 발음하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두 예사소리 혹은 거센소리로 적는 것이다.

7. ⑤번
'모호성'이란 곧 '중의성'을 뜻하는데, 중의성에는 어휘적 중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은유적 중의성 등이 있다.
제시된 선택지 중 ⑤번은 '그 배'가 가리키는 것이 과일인지 선박(船舶)인지 알 수가 없는 어휘적 중의성이다. 나머지는 모두 구조적 중의성이다.

① 지난번에 만난 것이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호한 구조적 중의성이다.
② 가정에 충실한 것이 주부만인지 남편까지인지 모호한 구조적 중의성이다.
③ 내가 혼자서 국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각각 만났다는 것인지, 나와 국어 선생님이 함께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인지 모호한 구조적 중의성이다.
④ 아내와 남편 두 사람 중에 아들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내라는 의미인지, 남편과 아들 두 사람 중에 아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아들이라는 것인지 모호한 구조적 중의성이다.

8. ②번
옹기가 양은 그릇에 밀린 현상을 의인법을 사용하여 멱살을 잡히고, 따귀를 얻어맞았다고 했다.
이과 같은 것은 강물을 의인화한 ②번이다.

9. ⑤번
인간은 두뇌의 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므로, 일부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히고 두뇌 개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자신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성적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이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10. ④번
'방끗'은 '방긋'보다 센 느낌을 주는 부사로, 여기서는 '입을 예쁘게 약간 벌리며 소리 없이 가볍게 한 번 웃는 모양'을 나타낸다.

① 입학율 → 입학률
② 어린이란 → 어린이난
③ 모르는 채하였다 → 모르는 체하였다

⑤ 겹질채 → 겹질째

11. ⑤번

사이시옷 표기의 기본 조건은 순우리말 합성어나 우리말과 한자어의 결합으로 된 합성어에서
첫째,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둘째,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뒷말이 ㄴ이나 ㅁ으로 시작될 때 그 사이에[ㄴ]소리가 덧나거나,
셋째, 앞말의 끝이 모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오 시작될 때 앞뒤에 [ㄴㄴ]소리가 덧날 때이다.

①번에 해당하는 것은 순우리말 합성어 '바다+가'가 [바다까]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②번에 해당하는 것은 순우리말 합성어 '이+몸'이 [인몸]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③번에 해당하는 것은 순우리말 합성어 '뒤+일'이 [뒨닐]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④번에 해당하는 것은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 '전세+집'이 [전세찝]으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⑤번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다.

12. ③번 (④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 문제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번은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문장이므로 '지'와 '만'을 모두 앞말과 띄어 쓴 것이 맞다. 이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의 유형이므로 확실히 답이 된다. 그러나 ④번 역시 한글맞춤법 43항을 참고하면, 아라비아 숫자 뒤에 나오는 단위명사는 띄어 쓸 수 있다는 허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 숫자와 단위명사는 원칙적으로 띄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0∨미터'가 원칙이고, '10미터'는 허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① 옷∨한벌 → 옷∨한∨벌 (수관형사와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② 큰∨것∨대로 → 큰∨것대로 ('대로'는 체언 뒤에서는 붙이고, 관형어 뒤에서는 띈다.)
⑤ 뛸듯이 → 뛸∨듯이 ('뛸'은 어간 '뛰'에 어미 'ㄹ'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앞말이 어미가 있을 경우에 '듯'은 띄어쓰기 한다.)

13. ②번

'윤똑똑이'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4. ④번

'넝쿨'과 '덩굴'만 표준어이다.

15. ②번

첫 번째 문장의 '부정(不正)'은 '옳지 못함'의 의미
두 번째 문장의 '부정(不淨)'은 '꺼리고 피하는 불길한 일'의 의미
세 번째 문장의 '부정(不定)'은 '답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을 의미
네 번째 문장의 '부정(否定)'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①번

'桑麻之交(상마지교)'는 뽕나무와 삼나무를 벗 삼아 지낸다는 뜻으로, 전원에 은거하여 시골 사람들과 사귀며 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刎頸之交(문경지교), ③ 膠漆之交(교칠지교), ④ 金蘭之交(금란지교), ⑤ 水魚之交(수어지교)는 모두 친한 친구와의 사귐을 의미한다.

17. ④번

창작 군담 소설은 주로 중국이 배경이며, 재자가인(才子佳人)형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왕권을 수호하는 등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가 드러난다.

18. ①번

'동반자 작가'란 프로 문학 운동과 단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그 취지에 찬동하고 보조를 같이 한 일군의 작가들을 말하는데, 유진오, 이효석, 박화성, 채만식 등이 속한다.

'김동리'는 좌익 문학에 반대하여 '순수 문학'의 이론을 정립한 작가이며, '김유정'은 해학성으로 대표되는 작가이며 구인회의 일원이기도 했다.

19. ①번

박목월의 '청노루'는 '머언 산 청운사'라는 구절을 통해 원경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을 볼 정도로 아주 가까이(근경)로 시선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20. ③번

'편력'은 '遍歷 두루(편) 지낼(력)'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경험을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맞다.

① 가상현실의 '가상'은 '假想 거짓(가) 생각(상)'을 사용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② 가시적 성과의 '가시'는 '可視 옳을(가) 볼(시)'를 사용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④ 과장 없는 사실의 '과장'은 '誇張 자랑할(과) 베풀(장)'을 사용하여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⑤ '삶에 대한 통찰'의 '통찰'은 '洞察 꿰뚫을(통) 살필(찰)'을 사용하여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